

조용한 피서 1번지... 11km 종려나무 길 동남아 휴양지 같네

수문해수욕장서 바지락 캐고 물놀이 하고... 힐링이 절로
피서지 문고 책 빌려 '독서 피서'도... 포근한 인심은 '덤'
키조개 번고장으로 '1박 2일'·'한국인의 밥상'서 소개도

국도 18호선을 따라 전남 보성 녹차밭을 지나 20여분 차로 달리니 장흥 안양면 수문마을의 탁 트인 해변이 눈의 피로를 씻어줬다. 득랑만을 따라가는 여정에서 수문마을은 장흥 들머리 역할을 한다. 수문마을은 7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장흥 유일의 수문해수욕장에서는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다가 지치면 물놀이를 하면 되고, 먼저 해수욕을 하다가 갯벌로 나가도 된다. 바지락 캐기는 7월은 4~13일과 20~27일, 8월은 2~11일, 17~26일 무렵에 체험할 수 있다. 바지락이 문힌 깊이가 5cm를 넘지 않아 쉽게 캐낼 수 있다. 소금물에 3~4시간 정도 해감을 한 뒤 다음날 아침 씻어 요리해 먹으면 된다. 단체로 예약하면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다.



수문마을 백사장 한복판에서 시작돼 바다 위를 거닐 수 있게 마련된 나무다리.

11km에 걸쳐 펼쳐진 종려나무 거리를 따라 걷다보면 동남아의 유명 휴양지에 온 기분도 든다. 피야별을 내리쬐 관광객들을 생각해 수문마을과 이웃 마을이 힘을 합쳐 만들었다고 한다. 포근한 인심에 발걸음이 가볍다.

조용한 휴가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수문마을은 '피서 1번지'로 꼽힌다.

매년 여름 마을에서는 책을 무료로 빌려주는 '피서지 문고'가 열린다. 종려나무 그늘 아래서 장흥 출신 이창준, 한승원 등 전남 문학에 파묻히다 보면 책 한권 끝내는 건 시간문제다.

해변 끝자락엔 700m 길이의 '한승원 문학 산책로'가 이어진다. 산책로는 5월에서 8월까지 피는 해당화로 붉게 물든다. 한승원은 소설 '해일'에서 "모래 언덕에 어우러진 해당화가 생각났다"며 수문해변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수문마을은 TV프로그램 '1박2일'과 '한국인의 밥상'에도 나와 유명해진 '장흥 삼합'의 키조개 번고장이다. 마을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80%는 키조개다. 키조개는 다른 조개보다 미네랄이 5~20배나 많고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이 풍부한 '바다의 보물'로 알려져 있다.

점심은 바지락 회무침을 골랐다. 유달리 살이 짝 차오른 수문 바지락에 감초와 배, 사과로 맛을 낸 양념장, 갖은 채소, 밥을 비비면 한 그릇 뚝딱이다. 바지락과 곁들이면 안성맞춤이다.

수문마을에는 숙박시설도 다양하다. 24시간 찜질방과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안단테 스파리조트'와 수영장 너머 일출이 창가에 담겨지는 '수문리조트', 펜션, 민박들이 곳곳에 자리 하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안단테 리조트에서는 대형 미끄럼틀이 있는 물놀이장도 운영하고 있다.

백사장을 에워싸는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캠핑을 즐기는 것도 백미다. 저렴한 가격에 텐트를 대여할 수도 있다. 백사장 정자가 여러 군데 마련돼 있어 돛자리 하나만 깔아도 근사한 보금자리가 만들어진다.

수문마을을 당일치기로 다녀오기에는 아깝다. 마을에서 차로 20분만 가면 정남진 장흥도요시장, 편백숲 우드랜드, 천문과학관 등을 둘러볼 수 있어 넉넉히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장흥 관광에 입문하는 이들은 수문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seantour.com/village/sumun)를 참고하면, 숙소, 음식점, 주변 관광지 등이 잘 정리돼 있어 여행 일정을 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장흥 '피서 1번지'로 꼽히는 수문마을은 갯벌과 해수욕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득랑만 해안의 절경이 한눈에 보이는 숙박시설과 식당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흥 9미' 키조개삼합·바지락회무침 유명...군침이 도네요

수문마을 먹거리

수문마을은 키조개삼합, 바지락회무침으로 유명하다. 키조개 삼합 음식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키조개 조형물이 서 있을 정도로, 키조개는 마을의 자랑이자 최고의 산물이다. 키조개, 바지락은 마을 앞 득랑만 갯벌에서 생산되고 있다.



득랑만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적어 키조개 성장여건이 좋아 관자가 크고 육질이 부드러운 것은 물론 향까지 난다. 키조개는 쪄먹는 갯벌에 모내기하듯 심어놓으면

조개, 바지락보다 30%정도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말이다.

키조개 제철은 4~5월로, 이 시기에는 미네랄 함유량이 높아지며, 필수 아미노산과 철분 함량이 풍부해 제일 맛이 좋다고 한다. 바지락은 3~4월이 되면 여름철 산란에 대비하여 크게 성장하는데, 이 때가 가장 맛있다. 키조개삼합, 바지락회무침은 '장흥 9미'에도 그 이름을 올렸다.

특산물 구매 문의 : 김영만 장흥 수문마을 어촌계장(010-8580-8620) /김중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과장 kjkair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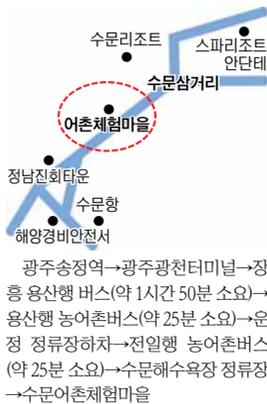


수문마을의 특산물인 키조개를 본뜬 조형물이 수문항에 세워져 있다.

찾아오시는 길

장흥 수문어촌체험마을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용곡로 194)

- ▶승용차 호남고속도로→산월IC→무안광주고속도로→지원 교차로→장흥, 화순방면→장수교차로→안양, 회천방면→약 16km 지나 수문어촌체험마을
- ▶고속버스
 - 서울강남고속터미널→장흥버스터미널→전일행 농어촌버스(약 45분 소요)→수문해수욕장 정류장→수문어촌체험마을
 - 서울강남고속터미널→장흥버스터미널→용곡행 농어촌버스(약 45분 소요)→용곡해수욕장 정류장→도보 4분→수문어촌체험마을
- ▶열차



'내년 근린공원 조성 등 전국민이 사랑하는 관광지 만들 것'

김영만 어촌계장

"수문마을을 전 국민이 사랑하는 관광지 만들겠습니다."

8년째 수문마을 어촌계장으로 일해 온 김영만(58)씨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김씨의 18년 다이버 경력은 그가 진정한 바닷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다. 김씨는 수문마을을 토박이다.

김씨는 13년째 '정남진힐팁'과 민박을 운영하며 외지 손님을 맞고 있다. 아들 김평근(34)씨는 든든한 조력자다.

자나 깨나 마을 걱정을 하는 김씨는 내년 완공하는 공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마

을을 둘러싼 뒷산 8만5950㎡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25억 원 등 총 50억 원이 투입된다.

김씨는 "산을 깎아 무조건 건물을 올리게 보다는 산책로 등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수문마을에 더 어울린다"며 공원 조성의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는 키조개와 바지락 모두 풍년이다. 김씨는 "수문마을 키조개는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 수출 효자를 맡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이곳 바지락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을 쳐준다"며 바지락 자랑도 잊지 않았다.

수문마을 어촌계는 매년 5월 초 제암산에 철쭉꽃이 만발할 때 키조개축제를 연다. 축

제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지난 5월 3일부터 4박5일 동안 열린 키조개 축제는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3만 명이 찾았다. 올해는 키조개 요리 경연대회, 장흥군 읍민 노래자랑 등을 마련해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김씨는 "130여 명의 어촌계원이 꾸리는 마을 축제는 장흥을 대표하는 관광축제가운데 하나가 됐다"며 "주민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촌계장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이웃과 화합해 수문마을을 '꼭 한번 찾고 싶은 마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전라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을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점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 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임 광 희